

정부, 신재생에너지 2015년까지 40조원 투자



정부는 지난달 13일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 7조 원, 민간 33조 원으로 구성되는 이번 투자는 각각 태양광 약 20조원, 풍력 약 10조원, 연료전지 약 9천 억원, 바이오 약 9천 억원 등에 지원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세계 시장 점유율 15%),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세계시장 점유율 15%)으로 육성해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 달러에 이르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통해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기술과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일부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대·중소기업 '그린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에너지절감 전문업체(ESCO)에 대한 용자금 가운데 3천 억원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고, 우대 금리 적용과 조업 중단 시 긴급운영자금 지원과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K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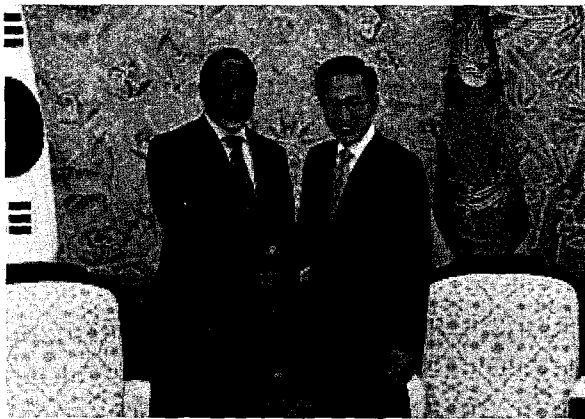
ASEAN국가에 기후변화대응 및 그린에너지 기술 전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동남아 국가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그린에너지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7개국 관련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18명은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표준과 측정, 인증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이번 교육은 한-ASEAN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술·표준·시험인증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KEA

210조원 남아공 원전 참여 길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디푸오 피터스 남아공 에너지부 장관과 ▲원자력 기술 연구, 원자력발전소·원자로 설계 건설 분야의 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공동 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협정에 서명했다.

남아공 정부는 전력난 타개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마스터플랜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2008년 말 중단된 원전 입찰 재개와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남아공 정부가 계획 중인 원전 6기 공사는 총건설비

가 1조3000억 랜드(남아공 화폐단위·약 210조 원)에 달한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남아공 원전 건설 참여를 위해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번 협정 서명을 계기로 방한한 칼레마 모틀란테 부통령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의 원전은 경제적 경쟁력이나 안전성·효율성에서 세계 어느 나라의 원전보다도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KEA

한-카자흐, 발하쉬 발전소 정부간 협정 체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카자흐스탄 아세트 이세케세프 부총리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했다.

발하쉬 사업은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가 38억 달러에 달해 양국간 경제협력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총 발전용량은 1,320MW로 2011년 건설에 착수해 201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KEA

아파트에도 에너지 다이어트 시대 개막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노후 아파트의 노후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지하주차장 조명의 LED 교체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보급 등을 지원하는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도에 서울시 소재 공공 임대아파트 7개 단지 3,809세대를 대상으로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어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준공 10년이 지난 공공 임대아파트 88만 세대를 대상으로 ESCO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첫 수혜를 받게 되는 아파트 주민들은 연간 에너지비용을 29% 절약할 수 있어, 세대당 평균 45.5만원에서 32.3만원으로 13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된다. KEA

국내 저속전기차 업체 중국과 손 잡는다



국내 저속전기차 업체들이 기술력 향상과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업체와 공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저속전기차 업체인 CT&T와 AD모터스는 최근 중국의 자동차 기업과 합작으로 고속전기차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 저속전기차 업체와 중국 전기차 업체의 공조가 활발한 것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합작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 비해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저속전기차 업체들은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기업과의 합작이 주요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국내 저속전기차 업체들에게는 큰 매력이다. KEA